

# 크로아티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5

## I. 일반개황

면적	57천 km <sup>2</sup>	G D P	609억 달러
인구	4.41 백만명	1 인 당 GDP	13,529달러
정치체제	의회민주제	통화단위	Croatian Kuna (HRK)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및 EU 가입 추진	환율(달러당)	5.50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 동부에 위치한 해안국가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및 헝가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아드리아해와 접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남서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의 관광명소로, 2010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 GDP의 16%가 관광수입에서 비롯됐을 정도로 관광산업은 크로아티아의 중요한 산업임.
- 크로아티아는 2003년 3월에 EU 가입을 신청한 이후 2004년 6월에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아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했으며 2011년 6월 30일 비로소 EU 가입협상을 완료함. 향후 EU 의회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비준안 통과절차를 거쳐 빠르면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가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집권여당인 크로아티아연합(HDZ)은 2007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하게 됐으나 2008년 말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경기침체 지속, 집권여당 출신 전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2011년 12월 4일 실시예정인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2011년 경제성장률 플러스로 전환 전망

- 2004~07년 중 크로아티아는 관광산업 호조 및 저금리 기조하의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로 2008년 경제성장률은 2.2%를 기록하며 전년의 5.1% 대비 성장세가 위축되었으며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EU 회원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내수침체, FDI 유입규모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를 기록하며 경기가 크게 위축됨.
- 2010년에는 이머징 국가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외여건은 개선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내수회복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2%를 기록함.
- 그러나 2011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EU 회원국의 경기침체가 완화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관리가능한 수준

- 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및 내수 위축 등으로 2.8%를 기록하며 전년의 5.8% 수준 대비 안정되었으며 2009~10년에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4% 및 1.1%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이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5%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임. 또한 2011년 하반기 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제성장률	5.1	2.2	-6.0	-1.2	1.0
재정수지 / GDP	-0.9	-0.9	-3.3	-4.5	-4.8
소비자물가상승률	5.8	2.8	2.4	1.1	2.4

자료: IMF, EIU.

### □ 2011년 총선에 앞선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IMF의 권고에 따른 재정개혁 정책 수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2007년에는 총선관련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로 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수입 증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9%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음.
- 2009년 1~6월 중 전년동기 대비 재정수입이 7.4%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5.1%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크로아티아 정부는 2009년 7월 부가가치세 인상(22%→23%) 및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세 신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수지 비상관리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2009년 재정수지는 크로아티아 정부의 목표치인 3%를 소폭 초과한 GDP 대비 3.3% 적자를 기록함.
- 2010년에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및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5%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도 12월에 실시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GDP 대비 4.8%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록

- 크로아티아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매년 서비스수지 흑자를 지

속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반으로 상품수지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2010년 기준 크로아티아의 총수입에서 기계류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제조업 부문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GDP 구성(2010): 서비스업 66.1%, 제조업 27.1%, 농업 6.7%

#### □ EU 회원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 형성

○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의 경제 상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EU 회원국이 크로아티아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서는 약 4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대 이탈리아 수출비중이 총수출의 19%, 수입비중이 총수입의 16%를 각각 차지하며 이탈리아가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수출대상국(2010): 이탈리아 19%, 독일 12%, 슬로베니아 8%, 오스트리아 6%, 세르비아 5%

\* 주요 수입대상국(2010): 이탈리아 16%, 독일 14%, 러시아 9%, 슬로베니아 6%, 오스트리아 6%

### 나. 성장 잠재력

#### □ 우수한 관광자원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 지속

○ 크로아티아는 1,500km에 걸친 아드리아 해안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10년에 GDP의 약 16%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의 관광수입(관광객 약 1,100만명 유치)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이 크로아티아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크로아티아 관광산업의 성장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은 크로아티아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것으로 분석됨.

-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주요 관광지역에 대한 현대식 숙박시설 건설, 해안지역 도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중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글로벌 경기침체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급감

- 크로아티아의 FDI 유입액은 2008년에 6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약 52%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세 시현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크로아티아에 대한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약 90% 감소한 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규모의 약 33%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중 FDI 유입규모 추이: 60억 달러('08) → 29억 달러('09) → 3억 달러('10)

#### 다. 정책성과

##### □ 2011년 6월 EU 가입협상 완료 및 2013년 EU 가입 예상

- 2011년 6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크로아티아와의 EU 가입협상이 완료되었으며 EU 의회 비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3년 7월 1일에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함.

\* 크로아티아는 2003년 EU 집행위원회 앞으로 EU 가입을 신청했으며 2005년 10월 EU 가입협상을 개시하여 2011년 6월까지 총 45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2011년 6월에 진행된 마지막 협상에서는 부패 척결, 사법권의 독립성 유지 등에 대해 EU의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짐.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크로아티아는 구 유고연방 국가 중 슬로베니아(2004년 가입)에 이어 두 번째로 EU 회원국 지위를 부여받게 됨.

### □ 크로아티아 정부, EU 가입을 위해 각종 개혁 지속추진 예상

-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크로아티아의 정식 EU 가입 시점까지 크로아티아의 개혁성과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크로아티아 정부는 순조로운 EU 가입을 위해 부패척결, 사법제도 및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해소, 소수자 인권보호 등의 부문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통화가치는 2010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 수준 유지

- 쿠나(Kuna)화는 2007년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2007년 중 미달러 대비 쿠나화 환율이 연평균 5.36을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4.94로 더욱 강세를 나타냈으나, 2009~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현상이 나타나며 미달러 대비 쿠나화 환율이 각각 5.28, 5.50을 기록하며 쿠나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낸 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6월에 미달러 대비 쿠나화 환율이 5.92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안정되고 있으며 2011년 2분기 평균 미달러 대비 쿠나화 환율이 5.1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쿠나화 가치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크로아티아 중앙은행은 쿠나화 가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광 수입이 집중되는 여름에는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등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계절적 환율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201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크게 개선

- 크로아티아는 200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재 수입증가,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구조가 심화되어 왔음. 관광산업 호조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7년 7.6%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더욱 확대된 8.9%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을 통한 서비스 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내수 침체로 인한 상품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된 5.3%를 기록함.
- 2010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및 수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이 1.4%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1년에는 관광수입 증가로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는 반면,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f</sup>
경 상 수 지	-4,445	-6,247	-3,356	-901	-1,023
경 상 수 지 / GDP	-7.6	-8.9	-5.3	-1.5	-1.5
상 품 수 지	-12,933	-15,956	-10,290	-7,877	-8,334
수 출	12,623	14,460	10,736	12,067	13,261
수 입	25,556	30,416	21,026	19,944	21,595
외 환 보 유 액	13,674	12,957	14,419	13,665	16,290
총 외 채 잔 액	48,600	56,108	64,238	63,022	64,846
총외채잔액/GDP	83.4	80.5	100.7	99.4	98.6
D S R	33.5	30.4	45.6	60.6	57.4

자료: IFS, EIU.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양호한 수준 유지

- 크로아티아의 외환보유액은 2009년에 14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에는 통화(Kuna)가치 방어를 위해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외환보유액이 137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에는 통화가치 상승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16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144억 달러('09년 말)→137억 달러('10년 말)→163억 달러('11년 말 전망)



-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3개월분에 그쳤으나 2009~10년 말에는 각각 5.9개월, 5.8개월분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1년 말에도 월평균 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5.8개월분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 총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 점진적 개선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크로아티아의 총수출증가율은 -25.7%를 기록하며 대외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0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인 EU 회원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총수출증가율이 12.3%를 기록하며 크게 개선됨.
- 2011년에도 EU 회원국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크로아티아의 수출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수출증가율은 9.8%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2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 유지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총수출 하락의 영향으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전년의 170.6%에서 256.6%로 급상승했으며 2010년에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43.3%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2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9년에 100.7%를 기록한 이후 2010년에 99.4%로 소폭 하락했으며 2011년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GDP 확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98.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총외채잔액이 크로아티아의 GDP 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DSR은 60% 수준 기록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9년에 45.6%, 2010년에 60.6%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0~60%에 달하는 수준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1년에도 60%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크로아티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회원국의 경기회복세가 부진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외채 원리금상환비율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 지속

- 집권여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은 2007년 11월 총선에서 총 의회의석 153석 중 66석을 차지(제1야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은 56석 차지)하며 집권하게 됨.
- 그러나 집권 이후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로아티아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의 당수로서 크로아티아의 총리직을 수행해 온 Ivo Sanader 총리가 2009년 7월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더욱 하락함.
- 2011년 6월 말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협정 완료로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이 주요 정책으로 삼아 온 EU 가입 추진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7월 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2011년 7월 4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에 대한 지지율이 18.4%(6월 여론조사에서는 17.8%)를 기록했으며 사회민주당(SDP)에 대한 지지율은 27.9%(6월 여론조사에서는 29.8%)를 기록하며 집권여당에 비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남.

## □ 2011년 12월 실시예정인 총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 높아

○ 2011년 12월 4일 실시예정인 총선에서 집권여당은 연정구성 없이 단독으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은 중도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들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회민주당(SDP)에 대한 지지율이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에 비해 6~10%씩 높게 나타난 바 있어 12월 4일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DP)이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11월 총선 이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1년 3월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가 조기총선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조기총선 실시로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협상 완료시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집권여당 및 야당은 2011년 12월에 예정대로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 정권교체의 경우에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노력은 지속될 전망

○ 집권여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과 야당연합을 이끌고 있는 사회민주당(SDP) 양측 모두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어 2011년 말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위한 각종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권교체로 인한 대규모 정책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크로아티아의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날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지지율 하락이 재연될 수 있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회복은 신임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가능성 상존

-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급속히 상승하였음. 2008년에 13.4%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10년에는 각각 14.9% 및 17.6%를 기록했으며 2011년 1분기에는 19.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 변동추이: 13.4%(2008) → 14.9%(2009) → 17.6%(2010) → 19.5%(2011년 1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2011년 초에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폭력시위 형태로 확대되지는 않음. 그러나 20%에 근접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경우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2011년 3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2011년 3월 6일,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 지속 및 집권여당 출신의 Ivo Sanader 전 총리의 부정부패 등에 불만을 품은 약 만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정권교체 및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임.
- 현 정부는 2007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하게 되었으나 2008년 말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크로아티아 경기 위축 및 실업률 상승, 전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등 일련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며 지지율이 크게 하락함.

### 3. 국제관계

#### □ EU 가입을 목표로 대 EU 우호관계 유지

- 2011년 6월 30일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와의 EU 가입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의회의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관련 비준안 통과 및 EU 가입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EU 회원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비준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2013년 7월 1일에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정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와 EU 회원국 간 관계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분석됨.

#### □ 슬로베니아와의 대립관계 완화

-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아드리아해 북부의 피란만(Gulf of Piran)의 조업권 및 국경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2004년에 EU 회원국의 지위를 얻은 슬로베니아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양국간 관계가 더욱 악화된 바 있음.
- 그러나 2010년 6월에 슬로베니아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더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국간 긴장관계가 완화되었으며 2010년 11월 29일에는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피란만(Gulf of Piran)의 조업권 및 국경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양국간 관계가 개선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크로아티아는 구 유고연방의 대외채무 승계를 위해 1995년 3월 파리를

럽을 통해 11억 달러(유고연방 공적 대외채무의 28.5%) 규모의 공적 대외채무 승계 및 14년간 리스케줄링에 합의했으며, 1996년 7월에는 런던 클럽을 통해 15억 달러(유고연방 민간 대외채무의 29.5%) 규모의 민간 대외채무를 승계함.

- 1995년 유고내전 종식과 함께 동 채무는 채권으로 재발행되었으며 1997년 2월 크로아티아 정부는 3억 달러(5년 만기) 규모의 유로본드를 최초로 발행하는데 성공함. 이후 크로아티아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성공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함에 따라 외채상황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음.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3억 달러, 중장기 8.8억 달러로 총 10.1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50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그쳐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연체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 OECD 회원국 ECA의 대 크로아티아 지원현황(OECD, 2010년 9월말 기준)
  - 단기: 총지원잔액 1.3억 달러(연체금액: 30만 달러, 연체비중: 0.2%)
  - 중장기: 총지원잔액 8.8억 달러(연체금액: 120만 달러, 연체비중: 0.1%)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1.9)	C1 (2009.12)
OECD	5등급 (2011.1)	5등급 (2010.1)
S&P	BBB- (2010.12)	BBB (2004.12)
Moody's	Baa3 (2011.5)	Baa3 (2001.11)
Fitch	BBB- (2009.5)	BBB- (2001.6)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모든 위험에 대한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전액 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4.15 수교(북한과는 1992.5.12)

□ 주요 협정체결 현황: 무역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2002), 투자보장협정(2005)

□ 2010년 대 크로아티아 교역규모 급증

○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36.1% 감소한 7,516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 경기침체가 완화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82.4%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하며 크게 확대됨.

\* 대 크로아티아 수출: 1.1억 달러(2008)→6,196만 달러(2009)→1.2억 달러(2010)

\* 대 크로아티아 수입: 976만 달러(2008)→1,320만 달러(2009)→1,935만 달러(2010)

○ 2011년 1~8월 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8.9% 감소한 6,650만 달러(수출: 5,181만 달러, 수입: 1,469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1년 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1년 6월 말 기준): 없음

<표 4> 한·크로아티아 교역 규모

단위: 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0,786	6,196	11,776	기계류, 운송장비, 직물, 연료, 식료품
수 입	976	1,320	1,935	기계류, 운송장비, 전기기기, 화학제품
합 계	11,762	7,516	13,711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크로아티아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관광수입 축소 등으로 2009~10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0년 하반기 들어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음. 크로아티아의 경상수지는 2008년에 8.9%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11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1.5%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2009년 이후 총수출증가율도 점진적인 개선추세를 시현하고 있음. 한편, 크로아티아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8년 이후 2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여전히 GDP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크로아티아는 2003년 3월에 EU 가입을 신청한 이후 2005년 10월부터 EU 가입협상을 시작했으며 2011년 6월 30일에 비로소 EU 집행위원회와의 EU 가입협상이 완료됨.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대한 의회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3년 7월 1일에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정치·사회 부문에서는 집권여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크로아티아의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 정부는 2007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하게 됐으나 2008년 말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 경기침체 지속, 집권여당 출신 전 총리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2011년 3월에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11년 12월 4일 실시예정인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재집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에도 신임정부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지속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정책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mailto:heej_choi@koreaexim.go.kr)